

회생·파산·워크아웃 '패스트트랙' 소상공인 폐업 후 새출발 돕는다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나서 법률 상담, 철거비 지원비 확대 등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취업·재창업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더욱 쉽게 하고, 폐업후엔 창업보다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빠른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소득공제한도를 늘리고, 장기가입자가 해약시 세부담은 낮춘다.

중기부는 14일 서울 종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센터(서울중부센터)에서 오영주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재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후엔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과 연계한다.

신속한 폐업 이후엔 장기 근속하면서 임금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희망리턴패키지(구직자로의 변화 관리)→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역량 향상 및 취업 알선)→장기근속수당(취업자)·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 및 새출발기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우대(취업자) 등의 절차를 통해서다.

수당은 희망리턴패키지 95만원, 국민취업지원 월 50만~110만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12개월 근속) 등 최대 954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을 제공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액도 늘린다.

점포 철거비의 경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기관도 기존 3곳에서 올해 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소득 1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늘린다. 500만~600만원(소득 4000만원 이하), 300만~400만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300만~400만원(6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으로 각각 확대한다. 다만 1억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노란우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부득이하게 해약할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기타소득세 15%'를 부과하던 것을 '퇴직소득세 3%'로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영상태 진단 결과 소상공인이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 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 내외)을 각각 진행한다.

오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내 벤처기업, 인도 SW 개발자 206명 채용

중기부, 취업 연계 프로그램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국내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벤처기업들이 206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201명은 인도 현지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력이었다.

또한, 사업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도공과대학등문재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SW 개발자를 채용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 SW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에서 3회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06명 중 201명은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인도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원격채용으로, 비자 발급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기업에 연계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등급'

정보제공 등 국민 알권리 충족 인정

기보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위해 지난해 해 동안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원문공개 열람분석을 통한 수요자 요구에 맞춘 원문정보 공개 ▲개방형 포맷을 적용한 적극적인 사전정보공표 등록 ▲홈페이지 방문고객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술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매년 4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이 대상이다.

또한,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9년 이후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 중심의 투명경영 실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승호 기자

"노란우산 가입하고 3만원 쿠폰 받으세요"

중기중앙회, 한 달간 설맞이 프로모션

위기 시 공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현재 노란우산에 가입돼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약 177만 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노란우산 설맞이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월 부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폐업, 노력,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공제금과 연복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는 프로모션 기간에 노란우산공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돼 최대 99만원까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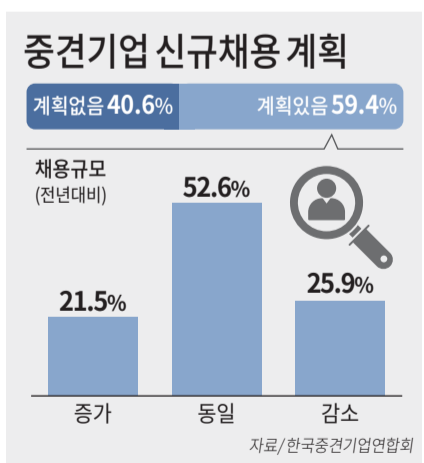
중견기업 41% "올해 신규 채용 계획 없어"

중견기업 800개사 대상 설문조사 채용계획 축소에 '채용 한파' 예상

국내외 경제가 '시계제로'인 상태에서 중견기업 취업 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다.

10곳 중 4곳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중견기업 중에선 '줄이겠다'(25.9%)는 곳이 '늘리겠다'(21.5%)는 곳보다 많았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채용하겠다'는 곳은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2.6%였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14일 내놓은 '2025년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신규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9.4%가 '있다', 40.6%는 '없다'고 각각 밝혔다.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중견기업들은 ▲실적 악화 및 수요 감소(40.7%) ▲비용 절감(30.1%) ▲경기

악화 우려(15.4%)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들은 '기본 인력 이탈 충원'(37.3%), '사업 확장, 신사업 추진'(35.3%), '실적 개선 및 수요 증가'(15.7%)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의 91.1%는 '기술·생산직(31.8%)', '연구·개발직(22.9%)', '영업·마케팅직(16.2%)', '사무·관리직(15.0%)'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인력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 지원 사업 확대(25.7%) ▲세제 지원 확대(23.2%) ▲고용 유연성 제고(17.5%)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16.6%)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5일 (수)
음력: 12월 16일

수도권 날씨: -6 ~ -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1/-2, 동두천 -10/-1, 가평 -12/-2, 파주 -11/-2, 서울 -6/-1, 양평 -7/0, 인천 -6/-2, 수원 -4/-1, 용인 -4/-1, 평택 -7/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언제 잡히나...이번 주말이 '골든 타임'
▲中 춘제 특별분송 시작...40일간 90억 명 이동 전망 /사진 뉴스시스

▲美 철강사 CEO "US스틸 인수하고 싶다...일본은 약"
▲EU, 내달 3일 NATO·영국과 국방 회담...트럼프 2기 대응

▲日정부 "北미사일, 日영역·EEZ로 날아오지 않아...한미일 협력 대응"
▲전쟁시 군사 지원 담기나...러시아, 이란과 오는 17일 새 조약 체결